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 세상으로!

양우권 열사

1주기 정신계승 추모제

2016년 5월 10일(화) / 남해 추모누리공설종합묘원
(철쭉평장1묘역 5단 39호)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양우권 열사 1주기 정신계승 추모제 식 순

민중의례

참가단위, 유가족 소개

추모사

정용식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

약력 및 열사투쟁 경과 보고

유가족 인사말씀

양효성

추모사

김현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추모사

강용재 (광양지역문제연구소장)

추모사

민점기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장)

추모가

최도은

분향 및 헌배

추 모 사

정용식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

산과 들판의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지고,
남해 바다의 물결에도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오월입니다.

그 생명의 오월에 열사는 떠나셨습니다.

노동자 세상 만들자고,
자녀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자고
마지막 목숨까지 내 던지며
민주노조의 영원한 조합원으로 남고자 했던
열사의 바람은,
우리 노동자뿐만 아니라 광양시민의 가슴을 울리며
탐욕에 눈먼
포스코와 EG의 인권유린과 비윤리적 경영을 질타했습니다.

그렇게 열사를 떠나보낸 지 1년이 지났지만
노동자의 권리도, 노동조건도 제대로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아직 우리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우권 열사가
노동자 세상, 민주노조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포스코의 무노조 철조망을 걷어내고
기필코 민주노조를 세워
열사가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양우권 열사를 가슴 깊이 새기며
생명이 함께 약동하는 우리의 오월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 평등 세상으로
호시우행(虎視牛行) 하겠습니다.



열사의 삶과 투쟁

- 1966.7.5. 경남 남해 출생
- 1998.2.5.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주)EG테크 입사
- 2006.12.23. 금속노조 EG테크지회 설립, 조합원
- 2008~2010.4. 금속노조 광양지역지회 쟁의부장
- 2010.5.~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EG테크분회 분회장
- 2015.5.9. EG그룹 체육행사에서
“노조탄압 중단” 선전
- 2015.5.10. 유서 4장을 남기고 항거 산화

열사는 포스코의 사내하청노조에 대한 잔인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지켰다.

열사가 입사 후 3년이 지났을 때 한국노총을 상급 단체로 한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하지만 1년 후 사측의 회유와 협박으로 노동조합이 해체되었다.

노동조합이 사라지자 회사는 더욱 마음대로 노동자를 대했고, 그 분노가 모여 2006년 12월 23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EG테크지회가 설립되었다. 또다시 노동조합을 잃을 수 없다는 각오로 노동조합을 설립했지만, 2008년 1월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을 하던 중 당시 분회장과 교섭위원이 포스코의 회유에 넘어가 다수 조합원이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했다. 남아있던 3명 중 2명마저 조합원 따돌림과 급여 하락 등 회사의 탄압에 노조를 떠났다. 이후 열사는 EG테크분회에 혼자 남았다.

회사는 2010년 10월 무기한 대기발령, 2011년 1월 집단 따돌림 지시, 2월 정직 2개월 처분까지 탄압의 수위를 높여갔다. 한편에선 노조 탈퇴시 징계 취소와 금전 보상 등을 제시했지만 열사는 이를 거부했고, 회사는 2011년 4월 열사를 부당해고 했다.

해고기간 열사는 광양제철소 1문 앞과 서울 포스코센터, 국회, 청와대, 박지만 회장 집 앞을 오가며 투쟁을 계속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투쟁에도 늘 함께했다.

2012년 11월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지만, 회사는 열사를 복직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해고가 정당하다는 소송을 다시 걸었다. 회사는 또다시 소송에서 불리해지자 2014년 5월 23일 열사를 복직시켰지만, 열사를 제철소 밖 사무실 책상에 덩그러니 앉혀놓고 집단 따돌림을 계속했다. CCTV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열사는 2015년 5월 10일, 인격마저 짓밟는 포스코와 EG테크의 잔인한 탄압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 항거했다. 열사는 유서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노동자 세상을 만들어 우리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라는 말을 남기며 그것이 노동자의 사명임을 일깨웠다.

